

해방전후 여성 정체성의 존재론적 구성과 이주

— 임옥인의 「越南前後」를 중심으로

차희정*

차례

1. 머리말
2. 자아 발견과 계몽의 설계
3. 탈이념적 저항의 파고(波高)
4. 이주를 통한 도전적 탈영토화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해방기의 '이주'에 집중하여 여성 정체성의 존재론적 구성의 양상을 이주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고 그 특징을 밝히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일제의 폭압과 그것에서의 해방, 해방기의 이념 대립과 민족 분열, 분단까지 일련의 '중대 사건'들은 개인이 정체성의 구성과 자아 회복 등을 실천하는 데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해방 이후 여성의 정체성 구성을 위한 자아 찾기와 주체성 획득은 일제 말 계몽의 의지와 노력에 기반하고서 진행되었다. 교육의 수여자나 수혜자 모두는 정체성 구성의 동기를 부여받는 동시에 글을 배우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등의 실제적 교육을 실천하였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현실은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의식을 끊임없이 훼손하기 때문에 여성은 이념에 갇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이주를 통해서 자아실현의 기획을 창출한다.

* 아주대학교 이주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해방기 여성은 현실과 충돌하고 저항하는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였다. 주인공의 교육 사업에의 의지와 인간애, 탈 이념적 사고와 행위 등은 정체성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정체성 구성의 요소로서 이주를 추동한다. 최종적으로 이주는 여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인 동시에 해방기 여성 정체성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어: 여성, 정체성, 해방전후, 이주, 탈영토화

1. 머리말

본고는 시적공간으로서의 해방기를 살아간 여성에 주목하고 여성 정체성의 존재론적 구성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의 지배담론 속에서 하위계층으로서의 여성의 주체적 태도와 정체성 인식의 존재론적 구성은 해방과 전쟁을 지나는 한국 현대사와 문학사를 조망하는 데 있어 그 독창성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해방기의 주체는 언제나 유동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때 주체가 구성하는 정체성은 출생에서의 조건과 환경, 고유의 본능적 욕구들, 남과 다른 능력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관계들을 통해서 팽창적으로 '정체성'의 구성 영역이 형성되어간다.¹⁾ 특히 해방기 여성의 정체성은 전근대의 가부장적 사고와 남성우월주의 아래에서 억압되고 소멸되었던 의식이 다시 회복되고, 재구성되는 등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1) 에릭슨은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명시된다고 주장한다. 그 개념은 개인적 성격의 핵심적 형태와 그 형태에 대한 개인이 의식 둘 다를 포괄하는 것으로, 본래 타고난 조건이나 능력, 동일시 등 사회 관계 속에서의 역할들을 모두 통합한 개념이다.(Erik Erikson, *Identity & the Life Cycle*, New York, 1959를 참조. 이 글에서는 Judith Kegan Gardiner,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글』, 김열규 외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218~237쪽 참조)

해방기를 배경으로 한 문학 논의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남성 중심의 담론 속에서 여성의 주체적 시각에 대한 연구는 일부 연구자에 의해서 여성의 성적 주체성에 관련하여 연구되어왔다.²⁾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이어받아 여성의 주체적 인식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행위로서 해방기의 '이주'에 집중하고자한다.³⁾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여성 정체성의 구성적 특징이 이주와 과연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이다.

19세기 이후 빈곤의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혹은 식민지의 억압을 피해서 중국 등지로 시작된 한인 이주는 강제 이주를 포함해서 자발적·비자발적 형식을 띠고 일본과 미국, 중남미 등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그들이 귀환, 재귀환함으로써 다시 한번 민족이 재편되는 역사적 변동 과정을 맞게 된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임옥인⁴⁾의 『越南前後』는 우선 기존의 자서전이 내재한 연대기적인 성격이 드러나

2) 해방기 여성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주체성 연구는 육체를 통해 구현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여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 전략을 획득하는 모습을 주체적으로 형상화했다는 김광주 작품에 대한 연구(이영미, 『해방공간의 김광주 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2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269~296쪽)와 해방기 '공창폐지운동'이라는 여성 연대의 조력으로 여성이 사회적 정화과정을 거쳐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연대가 여성 해방을 목적으로 정치참여의 행위를 진행해왔음을 증명하는 연구 등이다.(최지현, 『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 연대(solidarity)연구-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67~292쪽)

3) 본고는 월남과 월북 역시 이주의 범주에서 논의하는데 이주를 인간의 이동으로 인한 그들의 지리적 재배치의 개념으로 이해(David Held, *Global Transformations*, 조효제 옮김, 『전지구적 변환』, 창작과비평사, 2002, 443~514쪽)하려는 데에 그 까닭이 있다.

4) 1915년 6월 함북 길주 출생, 1930년대 후반 『봉선화』를 처녀작으로 문단에 데뷔, 1940년대 후반에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다가 6·25후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시작, 1995년 1월 4일 사망하기 까지 장편 13편, 단편 90편, 수필집 3권(자서전 2집 포함), 소설집 8권을 남겼다. 1945년에 함남 해산진 대어천에 가정여학교를 창설하고 농촌부녀계몽운동에 헌신하였다. 1946년 월남하여 창덕여고 교사, 건국대학교 대학장을 지냈다. 『越南前後』는 『문학예술』에 1956.7~12월까지 연재되었다.

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선적과 다른 ‘소설’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해방 현실과 월남을 기억하고 여성이 해방 전후의 상처와 고뇌의 시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기억은 과거의 현재화이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현재로 소환하여 펼쳐내는 전경화의 작업이다. 이때 기억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시점에서 항상 새롭게 재생산된다. 따라서 기억은 자아의식의 형성 및 보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이 현재 사회의 개인에 대한 요구로 가능한 것이라 할 때 해방기의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 여성의 정체성과 존재를 해방기의 연속선상에서 탐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성 의식(female conscious)은 ‘남성적인 정신’에서 나온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체나 구조를 생산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남성적 규범에서 생성된 문학 창작의 규정에서 일탈한, 이러한 유연한 성과를 통해서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정치·사회 담론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작가의 입체적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임옥인과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작품의 플롯과 인물을 분석한 기초적 연구를 시작으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작가와 작품의 성격을 분석하거나 반공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그를 월남작가⁶⁾ 그룹에 포함시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⁷⁾ 지금까지의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방기 여성작가

5) Judith Kegan Gardiner, 김열규 외 공역, 앞의 책, 219~220쪽

6) 본고는 월남민을 1945년 광복 직후에서 1953년 휴전으로 단일이 기정사실화 되기 전까지 북에서 남으로 이주한 한국인으로, 월남민을 삶의 근거를 이북에 둔 채, 정치적·사상적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월남하여 작가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월남민들에 대한 자료는 고은, 『1950년대』, 향연, 2005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본고 조사 결과 6편의 논문 중에서 박임순(『林玉仁 小説의 Plot 分析』, 동국대학

로서의 임옥인과 그의 작품에 대한 개괄적, 총체적 이해와 월남작가군의 작품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인식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아쉬움이 있다. 물론 월남작가의 작품은 곧 반공이데올로기적이고, 따라서 체제가 요구하는 성격의 작품이라는 선입견⁸⁾에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의 연구는 거의 처음으로 「越南前後」가 진행의 플롯을 통해서 시대적·사회적 상황이 인간의 운명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인공의 의지가 이와 대립, 갈등하면서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운명의 대립이 위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효석(「전후 월남작가 연구-월남민 의식과 작품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은 「越南前後」가 극히 개인적인 불화와 갈등을, 남하를 결행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현실인식의 피상성을 보여준다면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인식을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인물을 그려내고 있지 못함을 지적한다. 김복순(「임옥인론-분단 초기 여성작가의 진정성 추구 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vol.8, 한국문학연구학회, 1997, 25~74쪽)은 임옥인의 소설이 여성인 주인공을 대상적 존재로 묶어두려는 기존 이념의 굴레를 '결핍'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주체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越南前後」가 여성작가로서의 능동적이고 공격적, 지향적, 발전적이면서 동시에 혼란을 종식시키고자하는 조화로운 총체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혜자(「『코라』(Chora)로의 회귀-임옥인의 《월남전후》론-」, 『현대소설연구』 vol.7, 한국현대소설학회, 1997, 279~301쪽)는 「越南前後」가 임옥인의 문학창작 생활에 모태가 되어온 교육·문학·신앙의 3박자를 그대로 보여준 장편이며 해방기의 혼란이 잠재적인 모권으로의 회귀 또는 발전의 계기를 주었다 평가한다. 이는 이념과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보여준다. 박정애(「전후 여성 작가의 창작 환경과 창작 행위에 관한 자의식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1호, 아시아여성연구학회, 2002, 213~240쪽,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 -50~60년대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두 편의 논문은 임옥인의 작품이 '여류답게 섬세한' 특성이 드러난다면서 1950~60년대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한 작가로 평가한다. 2000년 이후 임옥인과 그의 작품에 대한 단독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월남작가를 논하는 연구에서 일정부분 언급된 정도이다.

- 8) 실제 월남인에 대한 반공주의적 신화의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다. 김귀옥은 이북 5도위원회 산하 동화연구소의 기관지 『월간 동화』의 분석을 통해서 월남인은 대다수가 북에서 중산층이거나 엘리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반소·반공주의자이며 한국전쟁 이전에 월남민의 수가 전쟁 이후 수 보다 많은 점과 월남인들은 고향 북만으로 돌아가기 위한 권토중래(捲土重來)를 기하고 있다는, 재생산된 월남인의 통설에 대해 제시하였다(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 역사비평사, 2004, 144~150쪽)

호출되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운명적으로 겪어야만 했던 생체험적인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해방기를 살아간 여성의 역사·사회 인식과 자기 존재 의식, 주체성 등 복합적 인식과 존재론적 구성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존재론은 인식론적 반성에 의하여 주도되어야한다. 모든 존재론적 사유는 인식론적 반성에 의해서, 모든 인식론적 사유는 그 존재론적 전제와 함께 반성되어야만 한다.⁹⁾ 둘 사이에는 지배·종속이 아닌 상호 영향의 관계가 있다. 본고는 그 상호 영향의 양상을 추적할 것이다. 즉, 인식과 존재의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문학이 보여주는 현실을(현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의미를 드러내는 과정, 그리고 그 드러냄을 통해 새로운 현실의 가능성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일제의 정치적 기획 속에서 구성된 여성 주체가 해방 이후 존재의 재구성을 실천했던 일련의 움직임들을 소환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이주와 여성의 존재론적 구성을 다룬 방대한 연구의 첫걸음이 되고자 한다.

2. 자아 발견과 계몽의 설계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갖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구성된다. 타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혹은 다름을 확인하고 밝혀내면서

9) Martin Morgenstern, 양우석 옮김,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비판적 존재론』, 서광사, 2001, 36~78쪽 참조

하르트만(Nicolai Hartmann)에 의하면 인식이 인식 작용을 수행하는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객체간의 관계인 ‘인식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인식 관계는 주체와 객체라는 두 존재자들 간의 ‘존재 관계’이다. 따라서 하나의 특수한 존재 관계를 다루는 인식론은 존재론에 포함된다.

자기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여성 정체성이 일제의 파시즘 정책에 따라서 변이되어 왔음¹⁰⁾을 이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해방이후 여성을 복합적이며 다양한 경험들의 집합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체가 자립적 실체이기보다는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 속 인물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작품 속의 인물의 자아 인식과 세계관을 무조건적으로 전체 집단의 세계관으로 등치시키는 오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적 세계관은 개인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모여서 구성된 것은 아니다.

몹시 추운 어느 날이었다. 장작 패러 온 두 패잔병에게 점심 대접을 후하게 했다는 소문이 치안대에까지 전해진 모양이었다. 을민이 올라와서, “누님 그런 센치는 버려야 해요. 제 입장이 딱하지 않습니까?”하는 것이었다. 나는 달다 스다 대답을 아니 했다. 그리고 그가 얼마 전에 총살당한 패잔병의 의젓하고 비장한 모습을 보고 몹시 언짢아하던 일을 기억하고 한 마디 하고 싶었으나 어쩐지 모두 부질없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내가 이 산간 지대에 머물러 있는 까닭이 문맹 퇴치에 있다고 위에서도 말했거니와 날이 갈수록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못마땅한 점이 있었지마는 역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일은 기쁨이요, 보람이 아닐 수 없었다.¹¹⁾

인용문은 일본 패잔병에게 식사를 대접한 ‘영인’에게 사촌동생 ‘을민’

10) 여성 정체성의 경우 중일 전쟁 이후 가속화된 파시즘화는 다양한 여성 정체성 집단 간의 정체성 투쟁을 가속화하거나 강제했다. 마르크스주의적 사상과 실천을 보여준 여성들에 대한 현실적·담론적 삭제에서부터 서구화와 퇴폐의 상징인 급진적인 신여성적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른바 ‘동양의 전통적 여성성’이라는 이름하에 총후 부인, 군국의 어머니를 기치로 한 여성 정체성이 지배적인 것이 된다.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여성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자유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여성들이 부상하게 되는, 헤게모니의 재배치가 이루어진다(권명아, 『역사적 파시즘-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6, 259~290쪽 참조)

11) 임옥인, 『越南前後』, 『한국현대문학전집 10』, 삼성출판사, 1979, 357쪽, 이하 제목과 페이지 수만 표기

이 불평하는 장면이다. 을민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그는 며칠 전 일본 병사 죽음을 보고“순고함”까지 느꼈지만 지금은 영인을 힐책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영인에게서도 확인되는데, 이데올로기에 매인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고 있다. 영인은 자신의 인식에 비춰 을민의 이중적 태도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인의 이해는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하려는 첫 단계의 인식 행위이면서 주체자로서의 자신을 의식하고 찾으려는 실천이다. 임옥인이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생각하면 『越南前後』에 체험적인 성격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소설의 허구적 구성보다는 삶에 대한 진실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중적 자아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은 현재의 ‘나’의 존재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동무는 공부를 많이 했다지요. 우리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일 많이 해주시오. 노동자 농민은 검소하지요. 동무는 너무 하이칼라 한데요!” 내가 무에 하이칼라 하단 말인가? 그렇다. 해방된 덕분으로 그놈의 몸빼를 벗어 버리고 소복일망정, 긴 치마를 입고 있는 때문인가? “내가 무에 하이칼라 해요?” 나는 그의 얼룩진 검정 광목 짧은 치마에 눈을 보내며 못 마땅한 듯이 쏘아붙였다. 그렇게 보아 그런지 참말 너무도 형편없는 시골뜨기요, 가난한 꼴이 덕지덕지 내솟은 모습이기도 하다.……중 략……“배우는 것이 힘이에요.” 나는 사실 그 자리에서 만신의 힘을 나 자신 속에 의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신념은 내 한 마디 한 마디에 활력을 부여넣어 주었다. “당분간 정치에두 경제에두 여권에두 눈을 감읍시다. 우선 우리는 문맹에서 구출돼야 합니다.” 나는 불같이 그 말들을 토했다. 장내가 떠나갈 듯 엄숙한 진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김동무 중지……” 내 등뒤에서 최 순희의 날카로운 제지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도 나는 할 말을 다 하고야 강단에서 천천히 물러났다.¹²⁾

일제치하의 문명개화론을 계승하고 있는 영인에게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현실은 ‘있어야 할 것의 없음’이며 ‘있는 것의 지나침’이었다. 영인에게 계몽은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그것을 향한 각성의 몸부림이고 진정성을 향한 강한 열망의 표현이다.¹²⁾ 그렇다면 ‘최순희’가 가지고 있는 “하이칼라”에 대한 편견과 노동자 농민에 대한 획일적 인식은 곧바로 계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영인은 자신과 지식인에 대한 몰이해의 태도를 보이는 최순희와 채동무에게서 사회주의 집단인식을 확인한다. 영인의 옷차림을 비난하는 이들의 옷차림은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사상에 전도된 두 인물의 현재적 상황을 드러내는 기호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로써 영인은 자신이 일관되게 계획했던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맞는다. 그리고 그의 확신과 신념은 부녀회 연설에서 “배우는 것이 힘”이라는 주장을 구성한다. 글자를 깨우치는 일이 중요하다든 영인의 연설은 주체적이고 성숙한 개인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계몽 의지이다.

물론 적당한 교원이 없어서 초기에 나는 여기서 거의 혼자 버티었다. 우선 가가 거겨부터 가르쳐야 했다. 동요를 암송 시키고 익숙한 민요곡들에 내 작사(作詞)를 붙여서 노래로도 가르쳤다.

그들은 한 달이 못 되어 훌륭히 한글을 해독해 갔다. 하루 여섯 시간, 그러나 시간과 시간 사이를 기계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었다. 흥미를 붙이면 국어만을 몇 시간이고 내리하다가 서투른 솜씨나마 오르간을 타며 노래를 시켰다. 재봉은 버선과 양말 깎는 법, 귀자루 짓는 법, 행주치마(한국식)와 에이프런 등 실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르쳤다. 열 칸이나 되는 넓은 온돌방에 커어다란 솥을 걸고 우리는 거기서 이 지방 명물인 감자로 가

12) 위의 책, 352~420쪽.

13) 김복순, 『임옥인론-분단 초기 여성작가의 진정성 추구 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vol.8, 한국문학연구학회, 1997, 38쪽.

지가지의 요리법을 연구했다.¹⁴⁾

계몽 의지로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주인공 영인의 일상이 드러나는 인 용문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매진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속도감이 느껴지는 서술을 통해서 쉽게 그려 볼 수 있다. 공부하는 여성들은 이전과 같이 사랑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 남편이나 연인의 수동적인 저당물¹⁵⁾이 아니다. 그들은 한글 공부와 생활에 필요한 실제적 체험 학습을 하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한 단계 성숙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가가 거거부터 시작해서 한 달이 못 되어 한글을 해독’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활동은 삶에 대한 주체적 태도를 견지한 여성성 획득의 가능성인 동시에 배움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경험의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과 모임은 개인의 창의적 생산과 독창적 사고를 유도하면서 그것을 발현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작품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계몽의 기획은 해방 현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에 원인한다고 볼 수 있다. 피식민지인으로 타자화 되어서 살아왔던 조선인, 그중에서도 이중의 억압 상태에 있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영인의 계몽 기획의 특성은 주목할 만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주인공 영인의 일관된 의식과 행위는 여성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주체를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체를 찾는다는 것은 계몽을 통해서 가능하다.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¹⁶⁾ 여기에서 미성년 상태란 다른

14) 임옥인, 앞의 책, 415쪽.

15)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333쪽.

16) I. Knat, 이한구 편역,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1992, 13쪽.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미성년 상태의 책임을 마땅히 스스로 져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을 경우이다. 농촌 여성들이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그것에 기준하여 행위 하는 주체적 삶은 영인의 계몽 기획의 최종적 목표인 것이다.

3. 탈이념적 저항의 파고(波高)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월남민들이 전쟁 발발 이후 1950년 12월부터 1951년 1·4후퇴 사이에 남하한 사람들이라는 통계수치는 대개 전쟁 이전에 월남한 사람들은 이미 해방 이후에 이북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련의 혁명적 조치 아래에서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었던 기득권 세력임을 짐작케 한다.¹⁷⁾ 그들은 토지개혁이나 현물세 징수 등의 세재개혁, 사상통제와 신앙의 자유 제한 등 일련의 사회주의 개혁프로그램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상실하거나 또는 포기한 채 월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건 초혼(招魂)이야……”

나는 친구가 실을 늘이고 가는 뒤에 오래도록 시선을 보냈다.

소련 비행기의 난폭(亂暴)의 흔적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명색이 연합군이 아니었던가? 그들은 영·미에 가담하여 바로 며칠 전에 일본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른바 약소 민족의 해

17) 임현영, 『6·25와 분단에 따른 실향민』, 『문학과 이데올로기』, 실천문화사, 1988, 210쪽. 실제 임옥인도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고등교육자, 즉 지식인으로서 6·25전쟁 발발 전에 월남했다. 또한 임옥인을 포함한 최태웅, 박연희 등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수학하였다. 근대 지식인계층으로서 그들의 의식이 사회주의 혁명성 강조의 현실을 수용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방을 코에 걸고 나선 그들이 아니었던가.

일황 유인(日皇 裕仁)이 15일에 손을 들었는데 17일에 이 함경 북도 요소 요소를 폭격했다니 일본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이 만행은 한국인에게 대한 심술이요, 위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전쟁의 파괴상이란 이런 것일까? 6·25 이전에는 다른 지방, 특히 남한에서는 듣지도 못한 참상을 이 함경북도 각지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 겪었던 것이다. “뻥뻥스럽게 전쟁 윤리란 걸 행사했는가?”나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어느 지점을 노려보고 있었다.¹⁸⁾

인용문은 영인이 해방 이후 소련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고향마을을 보고 연합국의 이름으로 조선에 폭격을 가하는 소련군의 행위에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방이“바로 이런 날이라고는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는”상황을 만들어놓은 새로운 권력 주체의 등장은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어머니를 찾아가던 영인은 소련군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주검을 곳곳에서 목도하게 되고, 그 죽음마다의 사연 속에서 일제와 다르지 않은 새로운 제국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경험한다. 그리고 뒤따라서는“전쟁윤리”를 말하는 그들에게서 타자로서 쌓인 울분이 표출된다. 그것은 사촌 동생 을민의 충격적 고문 행위를 보면서“아만의 새끼!”라고 외마디 지른 비명과 자신의 책을 가져간 소련군의 무고양과 무지를 비웃거나 소련의 횡포에 대해서“증오에 찬 눈초리로 어느 지점을 노려보는” 것 등이다. 문학은 사회적 갈등이나 모순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여 그것의 부정적 성격을 승화시키려 하며 사회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억압하려 하기에 영인이 체험한 해방 현실의 부정적 드러냄은 문학의 자율성이 획득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8) 임옥인, 앞의 책, 340~341쪽.

“전재민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우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마련하시도록.”/ “허, 그런 소소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위대한 혁명 과업이 남았으니까요.”/ “혁명과업?”/ “그렇습니다, 혁명 과업이……” / 그는 뺨뚱이 말하며 앞에 놓인 서류를 당긴다. 나는 그 사무소를 나오며, 사복(私服)에 권총을 차고 끄덕대는, 더러는 안면도 있는 사람들을 흘겨보았다. 참말 이제 내 손이! 그리고 내 발이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굳게 할 따름이었다.¹⁹⁾

“인텔리일수록 질이 나쁘거든요. 기성 관념이 있어서 얼른 교육이 안되지요!”나는 머리가 쭈뼛해졌다. …중략… “동무는 이제부터 인식을 달리해야겠는데요!”나는 내 뒤를 돌아다보았다. 따라 들어오리라고 믿었던 박부인이 없다.“공부한 것들은……”을민의 개인적인 반말이 다분히 섞인 이 말은 허욕의 피를 보아야 할 뿐아니라, 내게 대한 증오의 불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때마침 북청에서 들어온 어떤 청년에게서 나는 몸서리쳐지는 보도를 들었다. 해방 초기로부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던 애국청년, 주로 지식 청년들을 다수 숙청했다는 것이다. …중략… 무식과 주먹다짐과 무자비 그것이 밀천인, 소위 공산주의자들은 지식 청년들을 사갈시(蛇蝎視)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북청에서 일어났다는 사건이 이곳이라고 파급(波及)안 될 리 없는 것이다. 그러한 불안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껏 일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하는 것이다.²⁰⁾

영인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침범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는 ‘허욕’을 폭행하는 을민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이데올로기의 위협 속에서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한 세계관과 신념은 그것에 맞춰가며 자기 스스로를 축소시킬 뿐, 새롭게 마주하는 감각이나 경험 등의 내용을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19) 위의 책, 347쪽.

20) 위의 책, 410~411쪽.

화하고 자신을 확장시키지 못한다. 절대정신과 어긋나는 경험이나 현실을 마주하면서는 현실 자체를 배척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관성에 빠진 존재들은 항상 동일한 판단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집단적 관심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 언어의 한 형태(사회어)로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을 행동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들어준다.²¹⁾ 이렇게 지식인을 문제적 계급으로 대상화하고, 극도의 경계와 숙청의 대상으로 인식하는“무식과 주먹다짐의 소위 공산주의자들”은 영인을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면서도 그에게 불안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자아의 주체적 의지가 생성되도록 하고 있다. 여성의 정체성 문제도 일제강점기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학습되었고 개인의 인식은 그 안에 갇혀 왔다. 여성의 미덕은 순종적인 행동 방식의 보증이자 상관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체집단의 의식 속에서 개인의 세계 인식은 집단으로 흡수되어 전체에 의해 작동했다. 실제 1930~1940년대 일제 말기에 형성된 애국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해방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여성지도자’, 혹은 정치적 권력을 지닌 여성 정체성의 특성으로 귀결된다.²²⁾ 그러나 다성적인 해방기 환경은 이데올로기라는 집단 언어가 주체의 구성을 기획할 때, 주체구성은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을 경험

21) Peter V. Zimma, *Ideologie und Theorie : Eine Diskurskritik*, 허창운·김태완 역, 『이데올로기와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6, 379쪽.

22) 만주사변 이후 징후를 드러내고 중일 전쟁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된 정체성 투쟁은 특히 여성 정체성에 있어서 1900년대 이후 형성되어 1920년대에 정점에 달했던 신여성적 정체성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부정하게 만든다. 국제적이고 지식 권력과 성적 해방에 근거한 성적 권력을 지닌 신여성적 정체성 자질은 부정되고, 동양적 여성 정체성인 ‘애국부인’, ‘총후부인’과 같은 부인과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여성의 정치 참여의 대가로 제공되었다. 이러한 여성 정체성들 사이의 헤게모니 투쟁의 과정에서 본질적으로는 일본의 전시 체제 이데올로기와 황민화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으며, 전시 체제하 ‘정치’의 영역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성격이 변화되었다는 점과 신여성에 대한 1930년대 이후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권명아, 앞의 책, 284~286쪽 참조)

하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위 주체는 전복의 기회를 맞닥뜨리기도 한다.

그는 영문자(英文字)의 서적은 따로 자기 책상 위에 골라 놓고 나머지를 내 발부리에 씨익 소리를 내면서 밀어 놓았다. /“그 책들은 왜요?” /나는 눈으로 물었다. /“반동 서적이구요!” 나는 영·미 진영에 가담해서 약소 민족을 해방했다는 이들의 대의 명분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째 영·미가 웬수가 되나?” 덮어놓고 영서(英書)라면 머리를 짓는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은 또한 전체 소련의 의도이기도 할 터인데, 그것이 내게는 더욱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내가 이런 의혹을 품고 그의 무식에 놀라고 있노라니까 내게 이렇게 묻는 것이다. “여기(길주)서 더 멀리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문화 선전 공작을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건 거짓말이요.” /“나는 당신네 세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배우면 되지 않소?” /“나는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은 해 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²³⁾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대로 인간이 정치적 동물인 것은 곧 인간생활의 정치적 관련이 불가피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인간 생활의 전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권력 관계가 존재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권력 관계의 형성과 조직, 유지와 변경 등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정치적 행동이라 본다면 정치는 곧 삶의 본질적 양상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방 후 한반도에 등장한 미소군정의 제국적 권력은 조선인들에게 또 한번의 피식민지인 경험이 가능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당연히 미소군정과의 관계는 권력적이었다.

23) 임옥인, 앞의 책, 401쪽.

소련 장교와 독대하면서 이념에 관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영인의 모습은, 단단하게 정형화된 이념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데에서 주체적 자기 존재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판의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영미 시를 반동으로 이해하는 소련 장교의 무지함은 영인에게서는 놀라움과 궁금함이다. 개인의 인식 작용은 마비되어버린 체절대적 교시에만 기준한 그들의 의식 활동은, 영인이 문화 선전 공작 제의를 거절하고 자신의 교육신념을 강하게 피력하는 것에 필요한 용기와 두려움의 크기를 제압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었다. 그리고 거절과 함께 이어진 '일터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적 표현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그 체제에 저항하는 동시에 분명하게, 자신의 확정적 존재를 구성해가려는 영인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 이주를 통한 도전적 탈영토화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정체성의 구성과 주체적 인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개인의 모든 것은 발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긴다.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와 타자와의 연대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연대는 과거 전근대적 가부장제나 일제강점기의 규범적 사회 속에서 시도되었던 모습과는 분명 달라야 할 것이다.

주체적 삶을 위한 연대는 지난 과거 속에서 식민화하고 획일적이고 배타적인 원칙으로 여성을 타자화 했던 것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즉 나와 타자의 관계가 이미 내 자신 속에 고려된 '나'로 제시된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설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타자를 배려하거나 위하는 입장에서의 연대는 자칫 타자를 자기의 기준 속으로 중심화하여 결국에는 타자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벗어나야 하는 과거 규범

적 사회의 틀로 회귀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부터 종속적이며 강제적 연대의 사회구조는 곧 탈출의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신념이 부정되고 의식을 통제하려는 등의 현실은 주체적 삶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을 준비하는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적기가를 불러야 교육 노선에 맞는단 말씀이죠? 전 비위에 안 맞습니다. 교육과 적기가가 무슨 필연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일본 국가를 부르는 거나 적기가를 부르는 거나 부질 없고 심사가 꼬이기는 마찬가지라구 생각하는데요!”/“안됩니다. 반동이요.” 을민이 씨근덕거리며 일어나 외쳤다. 침이 내 달아오른 뺨에 와 튀긴다. …중략… 나는 이제껏 참아 오던 마지막 말을 토하고야 말았다. “일제에 압박당해 온 것만두 기가 막히는데…… 말루는 해방이라면서 왜 뭣 때문에 누구한테 구속을 당해?” 그리고 한숨 돌리고 나서, “너희들 공산주의가 이기나 자유주의가 이기나, 두 개의 세계의 결말을 내 눈으로 보아야 말 테다. 야만의…… ” …중략… 해방 후, 혼자 된 내게 든든한 울타리처럼 보호병 노릇도 해 주던 을민이……그리고 그 인간성에 있어서 사육이 없던 을민이었다. …중략…나는 이제 머물러 있을 만한 안정성도 까닭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²⁴⁾

영인이 해방 직전에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해산진 고모 댁으로 피란을 떠나 온 것은 식량 사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남편을 잃은 자신의 생의 상처를 다스려 보려는 의도가 컸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그녀는 농촌 여성들의 문맹을 깨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 했다. 최순희와 을민의 혁명과업 실천에 협조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반동’이란 힐난을 듣는 속에서도 농촌 여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계속하는 일상을 지내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체성 훼손의 위협은 존재의 존엄함을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행위를 결

24) 임옥인, 앞의 책, 384~385쪽.

심하도록 한다. 이주를 통해서 현재의 일상 자체를 파괴해버림으로써 그것의 새로운 의미를 전면화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상이 지속됨의 소중함이고 곧 생존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이다.

36년간이나 지속된 일제강점기의 폭압과 닳아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교육 목표와 방법 등에 깊이 간섭하면서 동시에 교육자로서의 영인의 신념을 위협하고 있다. 이념의 압박에 저항하는 그의 모습은 단호하고도 날카롭다. 사회주의 선전을 위해서 교육을 도구화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남편과 사별한 자신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을민의 변화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이 더해진 까닭이다. 적기가를 불러야 한다는 종용은 일제가 그들의 국가 부르기를 강요했던 것과 다르지 않으며 제국이 행사한 억압과 감시 속에서의 자아 정체성과 존재의 훼손은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상에 대한 혐오와 주변과의 소통 불가능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현실의 압도적인 폭력 안에서 유기체처럼 증식되고 있다. 영인에게 일상은 두 얼굴로 분리된 채 어느 한 쪽이 극대화 된 채 인식되고 있는데, 일관성 있는 실존을 훼손시키고 방해하는 이념의 권력과, 무엇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주체적 생존이 그것이다. 실상 일상은 이 두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영인에게서는 끝내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의 훼손됨의 지속은 회복의 기회를 타진하려는 주체를 깨우고, 주체는 억압된 영토로부터 구원의 영토로의 도전을 시작한다.

내 속에도 투지라고 할까, 무슨 의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만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톱 쏘아붙이거나 이론으로 따지거나 실정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 갑작스러운 무지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한다거나, 그러한 염의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내 속에는 치열한

투쟁 의식이 자칫하면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것은 갑작스레 해방을 빙자해서 달려든 사이비(似而非)자유나 해방을 오히려 역행하려는 이 알곳은 세력에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저 일제 36년간의 전제 속에서 삼일 정신과 광주 학생 사건은 물론 가지가지의 뼈에 사무치는 민족적 굴욕을 몸소 체험했던 한민족(韓民族)으로서의 상처 때문인지도 몰랐다. 나는 속으로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방 직후의 저 폭격 사건이라든지, 한없이 방대한 숫자의 소련군 진주라든지 이 정치·문화의 무질서라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점점 굳어져 가는 삼팔 장벽의 현실을 생각하며 안절부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도 모르는 생각을 나 혼자 반추하면서 무슨 결심이라도 하는 듯이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²⁵⁾

계속되는 이념의 간섭과 강압적 요구에 대응하는 영인의 의기가 팽팽한 긴장을 만드는 장면이다. 제국의 횡포가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는 현실과 고착화 되어가는 삼팔선은 영인이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복돋고 있다. 그리고 여성 군 동맹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 묵었던 혜산진 여관에서 맞닥트린 여인의 죽음은 다시 한번 삶과 존재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한다.

영인은 아편을 밀매하려던 여인의 죽음을 본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죽음은 영인으로 하여금 실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점차 어둠과 침묵에 대한 인식, 죽음과 마주보기의 양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죽음은 어둠이며 침묵이다. 침묵하면서 임종을 지키는 영인의 행위는 양가적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은 삶에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의 기쁨을 느끼며 살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문제적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두렵고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상태로서 영인을 부정하는 강력한 외부의 힘이다.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풍문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진행된 아편 밀수

25) 위의 책, 372~373쪽.

는 죽음을 위협하는 극단적 방법-몸 속에 아편을 넣어가지고 운반-까지 동원되어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된 현실에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에도 어둡고 차가운 긴 침묵에 잠긴 현실은 영인의 이주를 추동하고 있다. 개인은 주체이면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서야 한다. 타자의 삶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제국적 권력은 주체인 동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국적 권력자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을 의심하는 등의 행위를 멈출 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지면서 그 삶에 뿌리를 내리는 경우는 윤리적 주체를 획득한 것으로 거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없다. 일관된 주체적 삶의 기획과 실천을 지배하려는 사회주의 이념의 금압적 태도는 비판적 자기 존재 구성의 인식 활동과 대립 하는 중에 영인의 탈영토화 기획을 추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인의 얼굴, 즉 여성 개인의 진정한 존재의 구성은, 강요되고 학습된 가부장제 속의 여성성과, 절대화되고 신성시되기까지 한 이념 등의 초월적 기표에 예속된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경계선을 횡단하는 탈영토화된 공간에서 비로소 발견될 것이다. 해방 후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영인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한 월남 결심은 이러한 탈영토의 기대와 결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남 하늘이라니…… 관념이 아니라 참말 조롱 안에 갇혔던 새가 푸른 창공을 후루루 날아가는 시원함을 나는 내 생리로써 체험했던 것이다. 나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다. 대기(大氣) 그 자체가 나를 온통 삼켜 주었으면 하고 내 전신을 떠맡기는 심정이었다. 몸에는 폐물 하나 지니지 못했다. 몸빼도 일부러 헌것을 걸치고 넘어왔다. 주머니를 더듬어 보았다. 돈 삼백 환이 겨우 남았을 뿐이다. 이제부터는 맨주먹으로 나 자신을 시험할 때가 온 것이다. 용기를 내야겠다. “나는 재산은 못 물려준다. 그 대신 정성껏 교육은 시켜 주마.” 참말 아직 만주 땅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

한 마디가 내가 살아갈 전 밑천이었던 것이다.²⁶⁾

인용문은 한탄강을 건너서 이남에 도착한 영인이 새 삶의 시작을 앞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는 장면이다. 인간은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소설에서의 공간은 배경의 구실 뿐만 아니라 상징의 구실까지도 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장소는 안전을 의미하며 공간은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²⁷⁾ 영인의 월남은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 주체적 행위이면서, 자아실현의 공간을 희망하는 행위이다. 즉 이주 행위는 존재 구성의 필요 조건이 되는 동시에 해방 이후의 새 세상에서의 존재를 완성하는 충분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한 시기에, 전체 집단에게나 개인에게 가해진 상처와 그로 인해 남겨진 상흔은 외연적 치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연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다. 상처는 회복 지향의 여러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전체의, 개인의 자아 회복을 위한 실제적 노력과 실천을 추동한다. 일제의 폭력과 억압, 그것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이념의 대립과 민족 분단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중대 사건'들은 개인에게 정체성의 구성에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해방기 여성의 정체성 구성과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시대의 요

26) 위의 책, 390쪽.

27) Yi-Fu Tuan, *Space and place*,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15쪽.

구와 개인의 자각이 충돌·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되고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에게 예속된 채로 그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가기를 강요받았던 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훼손된 자주성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자아 찾기와 주체성 획득을 위한 계몽, 즉 글을 배우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때 교육의 수여자나 수혜자 모두는 정체성 구성의 동기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맹목적 이데올로기의 추종이 보편화 된 현실은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의식을 끊임없이 훼손하려고 한다. 해방기 여성 정체성은 현실과의 저항과 충돌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을 개인의 자기 정체성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주를 통해 완성되거나, 정체성 구성의 요소로서 이주를 추동하게 된다. 즉, 이주는 여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기억을 통한 방식으로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 이후에까지, 그 연속선상에서 여성 정체성의 존재론적 구성을 살펴 볼 수 있었지만 해방기 여성 개인의 경험에 집중하여 여성의 정체성 구성의 양상을 논한 것은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향후에는 월남작가로서 나뉠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음에도 아직 연구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임옥인의 다른 작품²⁸⁾을 발굴, 소개하고 동시대 작가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해방기 군소작가들에 대한 연구로 확장시켜 나아갈 것을 과제로 삼는다.

28) 본고의 조사 결과 임옥인은 해방기에 출간된 잡지들에 작품을 발표해왔다. 확인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약속』, 『백민』, 1947.2, 『오빠』, 『백민』 제4권5호, 1948.10, 『落果』, 『백민』, 1950.2, 『芍藥』, 『대조』, 1948.4, 『風船記』, 『대조』, 1946.5, 『無예의 呼訴』, 1권2호, 1949.10, 『명일』, 『민성』 5권11호, 1949.10, 『떠나는 날』, 『문화』 1권2호, 1947.7 등이다.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임옥인, 『越南前後』, 『한국현대문학전집 10』, 삼성출판사, 1979, 322~435쪽.

2. 논문 및 저서

고은, 『1950년대』, 향연, 2005, 13~101쪽.

권명아, 『역사적 과시즘-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6, 249~290쪽.

김귀옥, 『이산가족-‘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역사비평사, 2004, 22~74쪽, 141~169쪽.

_____,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밀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3~40쪽, 391~424쪽.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254~307쪽.

김복순, 『임옥인론-분단 초기 여성작가의 진정성 추구 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vol.8, 한국문학연구학회, 1997, 25~74쪽.

김윤식, 『6·25 전쟁문학-세대론의 시각』,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32~57쪽.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 문학사회학』, 문학과지성사, 1991, 199쪽.

김효석, 『전후 월남작가 연구-월남민 의식과 작품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박임순, 『林玉仁 小説의 Plot 分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50~60년대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이영미, 『해방공간의 김광주 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2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269~296쪽.

이은자, 『월남 작가 작품에 나타난 반공이데올로기 수용과 비판 양상-월남 지식인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4, 182~209쪽.

임현영, 『6·25와 분단에 따른 실향민』, 『문학과 이데올로기』, 실천문화사,

1988, 15~310쪽.

전혜자, 「'코라'(Chora)로의 회귀-임옥인의 <<월남전후>>론-」, 『현대소설연구』 vol.7, 한국현대소설학회, 1997, 279~301쪽.

최지현, 「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 연대(solidarity)연구-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67~292쪽.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문화과학사, 2006, 296~319쪽.

한수영, 「월남작가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반공이데올로기와 1950년대 현실인식」, 『역사비평』, 1993 여름호, 296~314쪽.

Held, D, *Global Transformations*, 조효제 옮김, 『전지구적 변환』, 창작과비평사, 2002, 443~514쪽.

Kant., I, 이한구 편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1992, 13~22쪽.

Kristeva., J, 김열규의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218~237쪽, 298~326쪽.

Morgenstern., M,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비판적 존재론』, 양우석 옮김, 서광사, 2001, 5~78쪽.

Morris., P, *Literature and Feminism*,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221~268쪽.

Tuan., Y.F, *Space and place*, 구동회 ·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15~70쪽.

Zimma., Peter V, *Ideologie und Theorie : Eine Diskurskritik*, 허창운 · 김태완 역, 『이데올로기와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6, 369~382쪽.

Abstract

Ontological organization of women's identity and their emigration
around the Liberation period

—focusing on 「Before and After Going to South」 by Okin Im

Cha, Hee-jeong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ontological organization of women's identity within the context of 'emigratio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 series of 'significant events' from Japan's oppression and the liberation from it to ideological conflict, disunion and division was a powerful agent to retrieve individual identities.

Finding and acquiring identities and independence for women to establish their own identities after the Liberation were developed by the willingness and desire for education during the later period of Japanese regime. Both educators and students were motivated to establish their own identities while they learned how to read and write and practical knowledge. However, blind pursuit of ideology still existed which could impair the individual identity and self-consciousness; therefore women expressed strong will not to be trapped in an ideology as they explored their own way for self-realization.

Wome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established their own identities as they were facing and fighting the reality. The main character's will for education, humanism and post-ideological thinking and behaviour embody the idea of identity while encouraging emigration as an element of the identity. In conclusion, emigration is an element of women's identities as it completes women's identitie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Key words: women, identity, around the Liberation period, emigration, deterritorialization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